

2026년 7월 6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 KIWOOM WEEKLY

## KIWOOM WEEKLY

### 주도주를 둘러싼 기대와 불안의 교차점

이번 주 코스피는 1) 6월 FOMC 의사록, 2)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3)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PMI 등 주요 경제지표, 4)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5) SK하이닉스 ADR 상장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급락분을 만회해 나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400~8,600pt).

이번주 증시 방향성과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재료는 삼성전자 잠정실적(7일), SK하이닉스 ADR 상장(10일) 이벤트라고 판단.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AI 수요 불안, 메모리 업사이클 피크아웃 노이즈 등으로 지난 한주 동안 각각 -8.8%, -9.3%로 코스피(-3.8%)보다 크게 부진했던 상황(고점대비로는 삼성전자 -14.6%, SK하이닉스 -16.9%). 과거 실적 발표 당시에는 기대감만 높았다면, 이번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를 고려 시,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 셀온보다는 증시 전반에 걸친 안도감이 조성되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설정해두는 것이 적절.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3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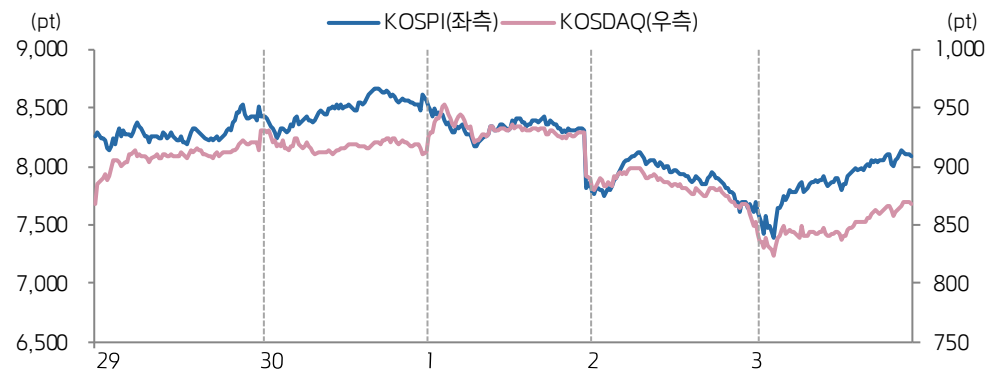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와 미국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주 초반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메모리 가격 피크아웃 우려와 메타발 AI 공급과잉 경계감이 재부각되며 하락 마감 (KOSPI -3.84%, KOSDAQ +2.00%).

코스피는 주 초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전력설비·방산·바이오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며 순환매 흐름이 강화. 특히 서남권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AI 데이터센터 투자, 충청권 패키징 거점 조성 등 대규모 투자 기대가 부각되며 전력·건설주가 강세를 보임. 그러나 6월 수출이 사상 첫 월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호실적에도 D램·SSD 수출 단가 하락이 반도체 가격 고점 통과 우려로 연결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메타의 잉여 AI 연산자원 외부 판매 소식이 AI 수요 정점 논란으로 확산되며 주 후반 지수는 8,000선을 하회. 이 과정에서 2일(목)에는 매도 사이드카, 3일(금)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됐으나, 주간 마지막 거래일(3일)에는 기관 순매수와 반도체주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 일부를 만회. 코스닥은 주 초반 정책 기대와 2차전자·바이오 급등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시장 전반의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상승폭을 반납.

대외적으로는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과 메타발 이벤트가 아시아 증시 전반의 위험자산 회피를 자극했고,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에서 등락하며 외국인 매도 심리도 강화. 다만 주 후반 미국 6월 비농업고용의 예상치 하회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했고, 미·이란 종전 협상 진전 기대도 투자심리 회복을 뒷받침. 결국 금주 국내 증시는 대규모 정책 모멘텀에 기반한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났음에도, 반도체 쏠림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과 외국인 이탈·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이 맞물리며 심리와 수급이 지수를 지배한 한 주였음.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15.72%), 증권(+10.25%), 오락/문화(+10.04%), 제약(+8.21%), 종이/목재(+8.01%)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7.56%), 보험(-5.72%), 유통(-5.69%), 제조(-5.11%)는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19조 7,808억원)은 화학(-1,564억원), 증권(-1,176억원), 금속(-608억원), 전기/가스(-584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8조 1,212억원)은 제조(+40,467억원), 금융(+35,951억원), 전기/전자(+28,626억원)순으로 순매수.

###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2026년 7월 6일

KIWOOM WEEKLY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7월 6일	월	EU	센틱스 투자자대지수	7월	-	-13.4
			소매판매 (MoM)	5월	0.3%	-0.4%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	6월	54.2	54.5
		기타	원·달러 24 시간 거래 시행			
7월 7일	화	독일	산업생산 (YoY)	5월	-	-0.5%
		미국	무역수지	5월	-78.8B	-55.9B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			
		회의	NATO 정상회의(~8일)			
7월 8일	수	한국	경상수지	5월	-	\$28.29B
7월 9일	목	중국	CPI (YoY)	6월	-	1.2%
			PPI (YoY)	6월	-	3.9%
		공개	6월 FOMC 의사록 (오전 3시)			
		실적	팼시코			
		발언	뉴욕 연은 총재			
	증시	한국 옵션 만기일				
7월 10일	금	독일	CPI (MoM)	6월	-	-0.3%
		일본	PPI(YoY)	6월	6.8%	6.3%
		발언	달러스 연은 총재			
		실적	델타 항공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6월 FOMC 의사록, 2) 뉴욕 연은 총재 등 연준 인사 발언 3)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PMI 등 주요 경제지표, 4)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5) SK하이닉스 ADR 상장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급락분을 만회해 나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400~8,600pt).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둘러싼 불안심리가 증시 전반에 걸친 가격 조정 및 변동성 증폭을 유발했던 상황. 애플의 CXMT, YMTC 등 중국산 메모리 사용 가능성,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보도 등이 AI 수요 및 메모리 사이클 피크아웃 노이즈를 확산시켰기 때문.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발 증시 혼란에도, 유가 및 금리 부담 완화 등 이전보다 양호해진 매크로 환경으로 하드웨어, 시클릭컬 등 비반도체주로의 순환매가 출현했다는 점도 이례적인 현상이었음.

이번주도 반도체주 투자심리 변화, 업종 순환매 지속성 등이 시장의 우선순위 관심사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주 급락의 여진이 남아있을 것이기에, 주중 시장 참여자들 간 상기 이슈들을 썬하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최근 코스피 거래대금의 20%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증시 전반의 수급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7월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비중은 29.1%로. 사상최고치 경신).

그러나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견조해진 점도 전략의 중심에 반영하고 가는 것이 적절. 지난주 증시 대혼란을 겪는 와중에 코스피 선행 PER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0배를 하회했기 때문(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은 6.27배, 현재 PER 저점은 7월 2일에 기록한 6.65배, 7월 3일 증가 기준으로는 7.0배).

현재 금융위기급의 대형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감안 시, 지난 2주간에 걸친 주가 조정은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 연준 등 매크로, 반도체 등 주도주 이벤트를 치르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벨류에이션상 저점 인식이 코스피 전반에 걸친 회복 탄력성을 높여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중 매크로상 주요 이벤트는 6월 FOMC 의사록이 될 예정. 지난 6월 FOMC는 성명서 내용 축소, 포워드 가이드스 미 제공, 케빈 워시의 점도표 미행사 등 연준 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이 줄어들었던 상황. 이런 측면에서 6월 FOMC 의사록은 지난 6월 FOMC 결과의 구체성과 연준 내부적인 환경 변화를 확인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의사록의 톤은 매파적이면서도, 연준 내 의견 분열이 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음. 하지만 6월 FOMC 이후 유가 추가 레벨다운, 6월 비농업 고용 쇼크 등 연준으로 하여금 완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만한 재료들이 등장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 이를 감안 시, 6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증시 중립적인 수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사실 이보다 더 증시 방향성과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재료는 삼성전자 잠정실적(7일), SK하이닉스 ADR 상장(10일) 이벤트라고 판단. 7일 예정된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은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5조원대(직전 1분기 57조원)로 역대급 실적이 선제적으로 예고된 상태. 물론 Fnguide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최대값이 99조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시장의 눈높이는 85조원대 이상일 가능성이 있음. 이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강하지 않을 시, 재료 소멸 인식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

2026년 7월 6일

KIWOOM WEEKLY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AI 수요 불안, 메모리 업사이클 피크아웃 노이즈 등으로 지난 한주 동안 각각 -8.8%, -9.3%로 코스피(-3.8%)보다 크게 부진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고점대비로는 삼성전자 -14.6%, SK하이닉스 -16.9%). 과거 실적 발표 당시에는 기대감만 높았다면, 이번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를 고려 시, 삼성전자 잠정실적 이후 셀은보다는 증시 안도감이 조성되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설정해두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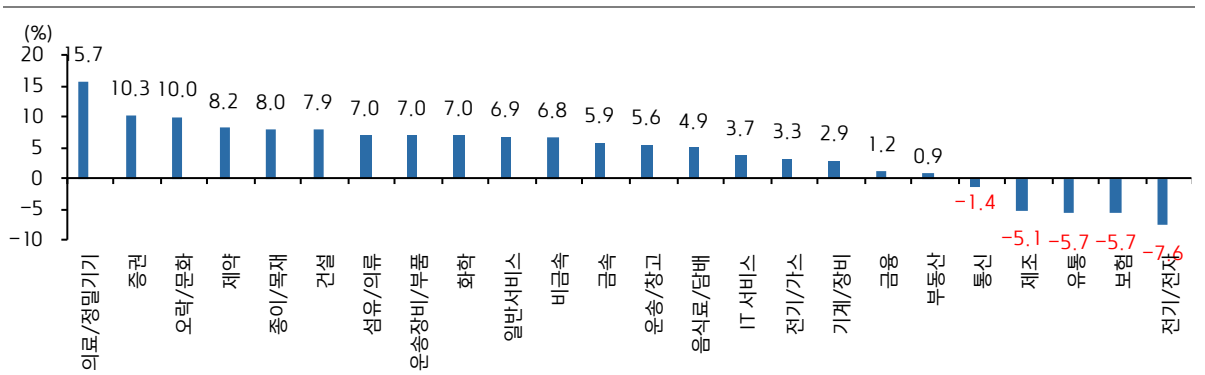
10일 예정된 SK하이닉스 ADR 상장의 경우, 신주 발행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약 2.5%에 불과하기에 실질적인 공급 부담은 제한적임. 이보다는 10일 미국 증시에서 상장 시 흥행 여부가 관건.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증시에서 삼성전자(5.5배), SK하이닉스(6.2배)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마이크론(6.7배)과의 PER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 이처럼 이번주는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벤트가 주가 변동성 레벨과 업종 순환매의 빈도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주가 될 것으로 판단.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8,088.34	5.8	-3.8	-8.1	91.9
대형주	8,955.37	6.2	-4.5	-8.2	104.6
중형주	4,181.93	0.0	5.6	-7.3	12.3
소형주	2,319.74	0.9	5.8	-6.3	-7.9
코스피 200	1,299.30	6.5	-4.9	-7.7	114.4
코스닥	868.41	0.2	2.0	-15.4	-6.2
대형주	2,209.31	-0.6	-0.7	-14.9	-1.9
중형주	865.60	1.0	5.5	-16.4	-3.8
소형주	2,326.24	1.3	5.4	-13.3	-9.6
코스닥 150	1,536.90	-0.6	-0.3	-15.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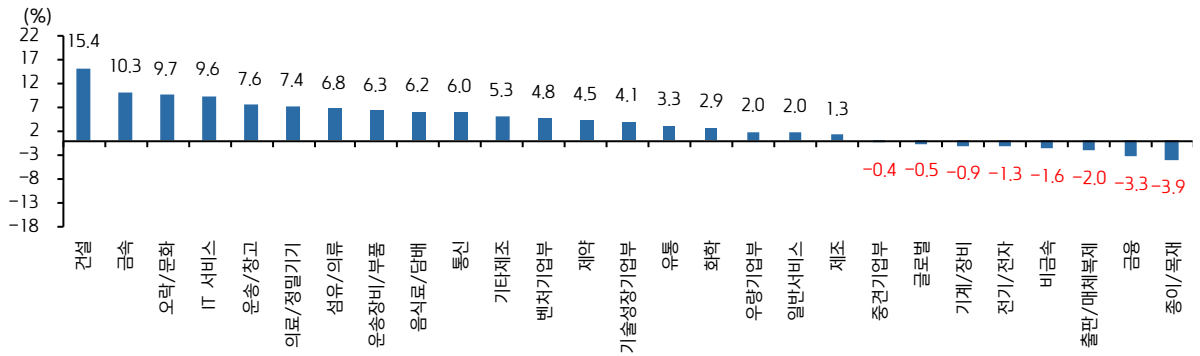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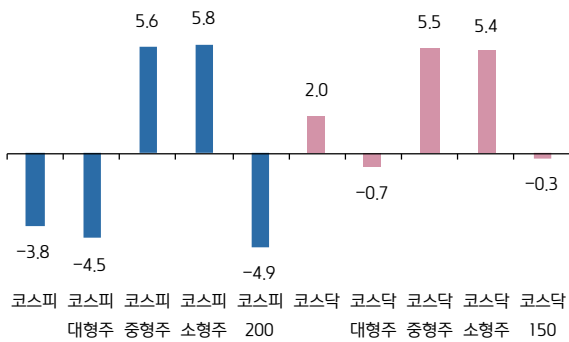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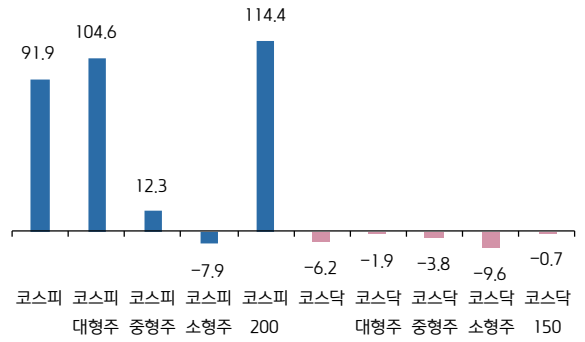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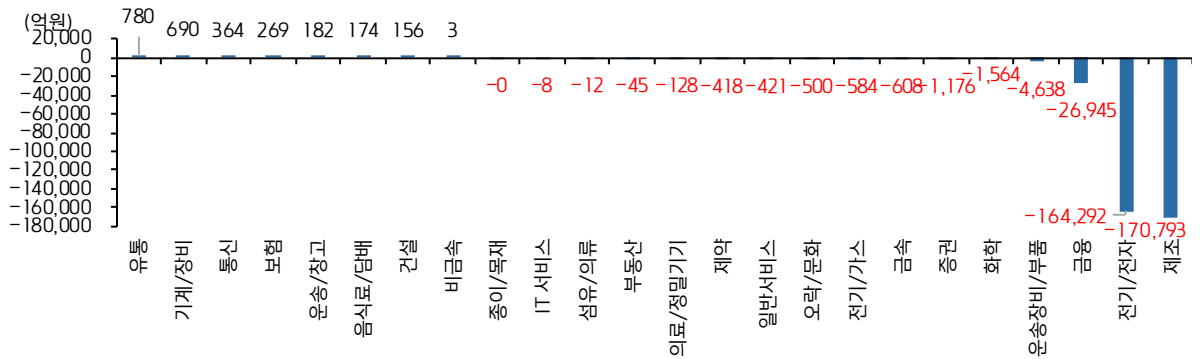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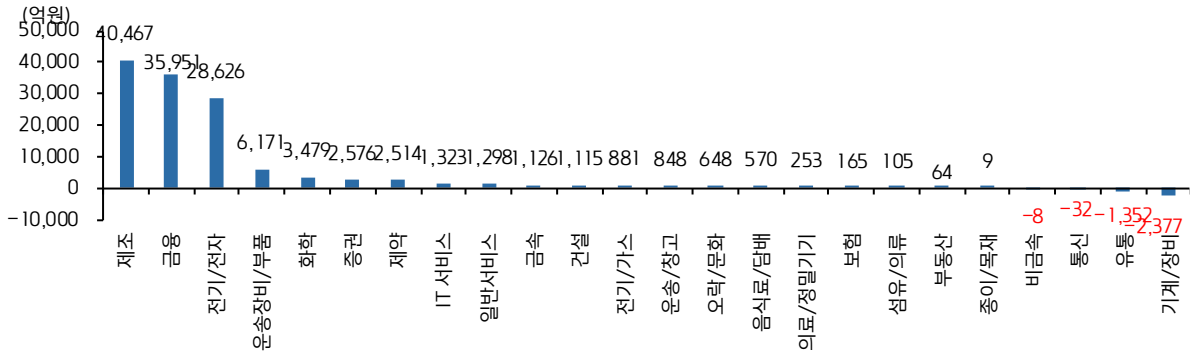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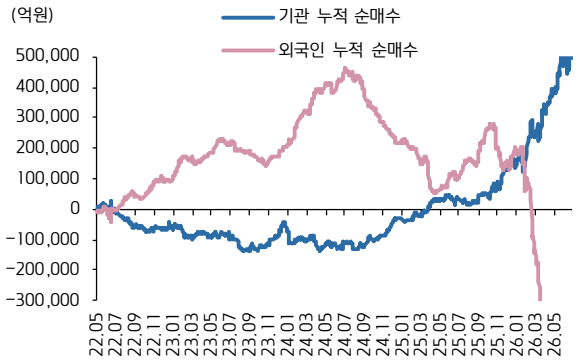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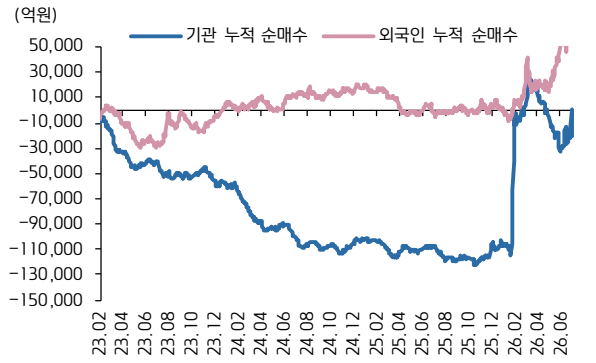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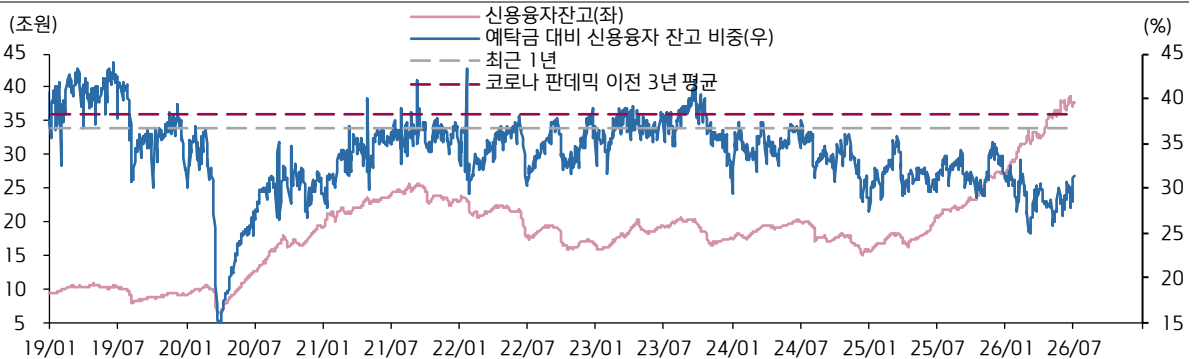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7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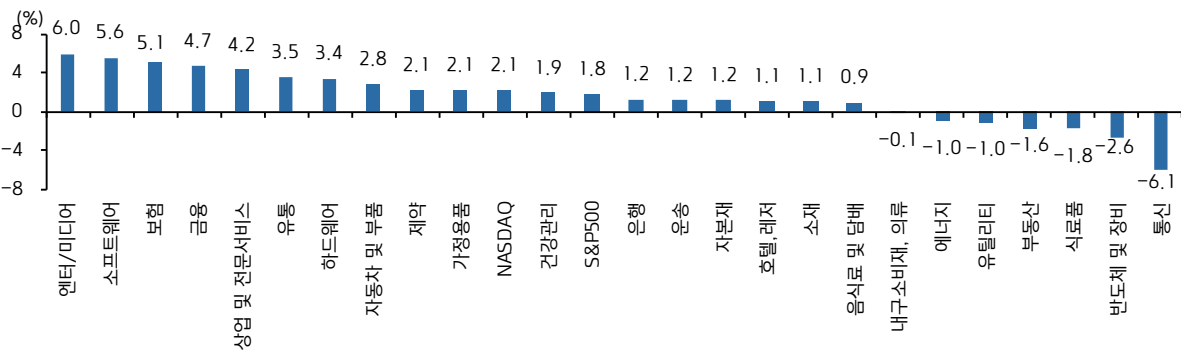
KIWOOM WEEKLY

###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